



# 조선왕조의 명나라 사신 접대 음식문화

## 사신 입경과 다례

김상보

대전보건대학 전통조리학과

조서(詔書)를 갖고 사신 일행이 서울로 들어오는 마지막 고개인 홍제원(弘濟院)에 이르면, 이곳에 있는 루(樓)에서 원로(遠路)에 입고 온 의복을 벗어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조복(朝服)과 잠영(簪纓)<sup>1)</sup>을 갖춘 조선 백관(百官)들의 영접을 받는다. 원접사(遠接使) → 사신 → 조서용정(詔書龍亭) → 고악(鼓樂) → 황의장(黃儀仗) → 백관의 반열(班列)을 지어 영접 장소인 모화관(慕華館)<sup>2)</sup>으로 향한다(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례음식문화』, 23쪽).

1) 잠영(簪纓) : 관원이 쓰던 비녀와 갓끈.

2) 모화관(慕華館) : 현재 서대문구 관동 65번지에 위치하는 곳으로 태종 7년(1406)에 세웠다. 다음 해에 남지(南池, 남쪽 연못)를 현재의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자리에 만들었는데 그 규모는 양어(養魚)를 위하여 쌀이 월 10말이 소용되었다 한다. 파종한 연화는 개성 숭교사지(崇敎寺池)의 것을 이종(移種)하였다 한다.

모화관 서북쪽에 있는 루대(樓臺)<sup>3)</sup>에는 남쪽으로 향하여 무늬 있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혀 궁전(帳殿)을 만들었고, 이 장전(帳殿)밖의 좌우편에는 사신과 왕의 자리를 만들었다. 장전 북쪽에 있는 홍문(紅門)에도 무늬 있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혔다. 전하의 악차(輦次)<sup>4)</sup>는 남쪽으로 향하여 설치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 卷1).

사신 일행이 장전 밖 홍문을 통하여 들어오자 곤룡포(袞龍布)와 면류관(冕旒冠)을 갖춘 전하가 사신 일행을 맞아 예를 갖춘 후 각자의 자리에 가 앉고, 장전 남쪽의 동쪽에는 문관(文官)이 서쪽을 향하고, 서쪽에는 무관(武官)이 동쪽을 향하여 서열대로 마주서며, 의장(儀仗) 역시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 선다. 금고(金鼓)<sup>5)</sup>는 남쪽에서 장전을 향하고, 조서를 실은 용정은 정전(庭殿) 한 가운데에 세운다. 그런 다음 『영조서의(迎詔書儀)』를 통하여 명 황제가 보내오는 문서를 엄숙한 의식을 통하여 맞이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 卷1).

모화관에서 영접의례가 끝나고 휴식을 마친 후, 원접사 → 사신 → 조서용정 → 고악 → 황의장(黃儀仗)<sup>6)</sup> → 전하연(殿下輦) → 대가노부(大駕鹵簿)<sup>7)</sup> → 왕세자 → 종친 → 문무백관 → 기병대(騎兵隊) → 금고(金鼓)의 반열을 지어서 ‘군자대로행(君子大路行)’의 연유로 도성에서 제일 큰 숭례문(崇禮門, 지금의 남대문)을 통하여 입경(入京)한다(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례음식문화』, 17쪽).

이 장대한 입경 행렬을 보기 위하여 거리는 노인과 어린이들로 가득차고, 사신 일행이 지나가게되는 거리의 집들에는 채색 비단으로 싸거나 그림을 걸었다. 연속해서 모여드는 거마(車馬)의 소리가 광화문에 이르자 광화문 밖 동서에서는 산디놀이(鰲山)<sup>8)</sup>의 두 자리가 벌어진다. 이것은 온갖 놀이를 베풀어 조서를 맞이하기 위함이다.

자라는 산을 이고 봉영(蓬瀛)의 바다 해를 싸며, 원숭이는 아들을 안고 무산협(巫山峽)의 물을 마시고 있다. 두 사람이 어깨에서 춤추는 어린 남자아이를 세운다. 한편에서는 많은 줄을 세우고 외나무다리를 밟듯 미인(美人)의 모양으로 사뿐사뿐 밟으니, 사람들은 날뛰는 산귀신인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다. 사자와 코끼리 탈을 쓴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고, 꿩의 꼬리털을 모아 새모양을 한 사람들은 완조(鴈鳥)와 난조(鸞鳥)의 춤을 추고 있다. 평양이나 황해도 황주에서도 오산봉(鰲山棚)을 시설하고, 온갖 놀이를 베풀어 조서를 맞이하였지만은 유독 왕경이 가장 훌륭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卷1).

3) 루대(樓臺) : 사방을 바라볼 수 있게 높이 지은 다락집.

4) 악차(輦次) : 임금에 쉬는 장막으로 만든 임시 궁전.

5) 금고(金鼓) : 금종(金鐘), 8음(音)의 하나, 악기.

6) 황의장(黃儀仗) : 황색은 천자(天子)를 상징. 천자의 의장. 주) 참조.

7) 노부(鹵簿)란 의장(儀仗)을 갖춘 국왕 거동 때의 행렬. 의장이란 왕실의 의위(儀威)에 쓰는 무기 등의 기구로 병장은 의(儀)라 하고 의위에 쓰는 것을 장(仗)이라 함.

8) 오산(鰲山) : 산디놀이 또는 산대(山臺)놀이이라고도 함, 고려시대부터 조선왕조를 통하여 성행하던 대표적 가면극,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하여 도감(都監)을 두고 상연하였음.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이라고도 함.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의 정전(正殿)인 근정전(勤政殿)<sup>9)</sup>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여 조서가 전의 뜰에 이르면 세자와 배신(陪臣)들의 부축을 받은 전하가 허리를 구부려 맞이한다. 헌가(軒架)<sup>10)</sup>를 섬돌 위에 설치하고, 전(殿) 앞과 섬돌 위에는 흰 빛을 숭상하기 때문에 모두 흰베로 만든 장막을 둘러쳤다. 의장(儀仗)은 가지런히 정렬되고, 문반과 무반이 동서에 서열의 순서대로 서로 마주 서 있다.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봉의춤(鳳儀舞)과 수무(獸舞, 사자춤) 춤을 춘다. 좋은 향(香)이 향로에서 세 번 피어오르고 대신들은 머리를 세 번 조아려 경의를 나타내며(三叩頭) 산호(山呼, 만세)를 외친다.

왕이 옷을 갈아입기를 기다렸다가 인례(引禮)<sup>11)</sup>가 천사(天國의 使者)를 뜰 한가운데에서부터 인도하여 동쪽 계단(東階)을 이용하여 근정전에 오르고<sup>12)</sup> 전하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西階)을 이용하여 근정전에 오른다.

천사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고 왕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자리(의자)<sup>13)</sup>에 앉는데, 왕의 자리는 부사(副使)의 자리와 마주 대하되 조금 아래로 치우치게 앉고<sup>14)</sup> 왕세자는 왕의 남쪽에 동쪽을 향하여 앉으며, 신료들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여 앉는다.<sup>15)</sup> 통역을 통하여 인사말을 주고 받은 후 다례(茶禮)가 시작되었는데(『신증동국여지승람』 卷1), 찻그릇 등을 올려놓은 다정(茶亭) 두 개를<sup>16)</sup> 홍사건(紅紗巾)으로 덮어 전내(殿內) 남쪽 기둥사이 에 배설한다.

다정으로부터 은정(銀鼎, 차 끓이는 은제 솥 또는 다관)과 은로(銀爐)를 가지고 가서 인삼탕<sup>17)</sup>을 끓인 다음 은정을 연잎형태의 작은 쟁반인 은하(銀荷)로 덮은 채로, 다정에 갖다 놓

9) 근정전(勤政殿) :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에서 조서를 받기도 하였음.

10) 헌가(軒架) : 악기의 종(鐘)과 경(磬)을 거는 시렁.

11) 인례(引禮) : 안내의 예를 맡은 직급에 있는 자.

12) 동계(東階) : 원래 동계는 주인(主人)의 계단이고 서계는 손님 계단이나 명사신에게 동계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선왕 조는 명사신을 주인으로서 섬기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

13) 인조10년(1632) 5월 기유일에 임금은 금나라에서 파견한 사신 중남을 송정전에서 맞이하여 다례 의를 하였다. 이때 금사신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걸상을 사용하여 앉았다(『仁祖實錄』 卷 26, 5月 己酉條).

14) 왕의 좌석을 정사(正使)가 아닌 부사의 자리와 마주하도록 배치한 것은 정사를 명나라 황제 대하듯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임.

15) 좌석배치는 가장 상석이 북쪽에서 남향, 그 다음이 동쪽에서 서향, 그 다음이 서쪽에서 동향, 그 다음이 남쪽에서 북향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정도였다(김상보, 『조선왕조궁중의례음식문화』, 328쪽).

16) 다정 한 개는 정사의 다구, 다른 한 개는 왕의 다구를 담는다.

17) 성종조에도 사신 접대 때에 인삼차를 올렸고(『신증동국여지승람』 卷1),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와 있던 명나라 장군 양호(楊鏞)는 왕에게 “조선사람이 인삼차(人蔘茶)를 마시는데 이것은 차가 아니라 탕(湯)입니다. 인삼탕을 마시면 속이 번열(煩熱)하여져 차를 마시는 것처럼 상쾌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 사실에서(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264쪽), 조선왕조는 명나라 손님 접대에 초기부터 일관되게 인삼차를 제공한 듯하다.

는다. 이어서 작은 반에 유밀과와 다식 등을 담은 아름답게 꽃장식한 소위 과반(果盤)<sup>18)</sup> 이라고 일컫는 것이 개인 개인 앞에 전부 배선되고, 제조(提調)<sup>19)</sup>와 부제조는 다정 앞으로 나아가 인삼탕을 담은 은정으로 찻잔에 인삼탕을 따라 정사·부사·전하·왕세자 등 전원에게 찻잔을 올리면 각자는 찻잔을 손에 들고 전부 일시에 비로소 마신다. 뒤이어 또 탕(湯)이 나오고 이 탕까지 다 마시면 다례(茶禮)가 완성된 것이다(『通文館志』; 『高麗圖經』).

탕을 마시고 나서 전하는 몸을 일으켜 앞으로 나아가 명황제가 칙서를 내려 주신것에 감사 말씀을 하고 이것에 대한 명사신의 답방이 있는 다음, 사신들을 통례문(通禮門)<sup>20)</sup>까지 배웅한다. 원로에 지친 사신들은 비로소 숙소인 태평관(太平館)<sup>21)</sup>으로 향한다.

#### [참고자료]

『新增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仁祖實錄』

『高麗圖經』

『通文館志』

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의례음식문화』, 수학사, 1995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1993

18) 조선왕조는 개국한 이후 50년 안에 사대부에서도 다례를 잊어버렸고 궁궐에서조차도 차를 마시지 않았다(『世宗實錄』 세종12년). 그러나 중국사신이 오거나 궁궐의 공식적인 연회가 있을 때에는 여전히 고려의 의례를 계승하여 차가 등장하였다. 다구(茶具)는 다정(茶亭)에 진열되고 차와 과반이 세트가 되어져 나왔다. 다정, 과반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 연회식 의례』에 1902년까지 등장한다(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의례음식문화』).

19) 제조(提調) : 여기서는 영접 책임자. 종 1품 또는 정 2품의 품계를 가진 자.

20) 통례문(通禮門) : 조회(朝會)의 의례(儀禮)를 맡은 관아.

21) 태평관(太平館) : 현재 서울 태평로 남대문초등학교 북쪽 일대에 자리했던 조선왕조 때 중국사신이 조선에 와서 머물렀던 객관(客館).